

# '시대진단 사회학'의 새로운 이론적 흐름

기든스의 성찰적 근대화론과 보비오의 단선적 근대화론

신광영 ·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최근에 번역된 앤소니 기든스·올리히 벡·스콧 래쉬의 《성찰적 근대화》와 노르베르트 보비오의 《제3의 길은 가능한가》가 대안적인 정치질서를 모색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언급되고 있다. 앤소니 기든스의 《제3의 길》이 번역돼 많은 관심이 집중된 상태에서 출간된 두 번역서는 기존의 논의를 보다 심화시켜 줄 수 있는 책들이다. 이들은 모두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20세기 후반 사회변화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을 통해 래쉬가 '시대진단 사회학'이라고 이름 붙인 새로운 이론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도 있다.

## 대화민주주의의 실현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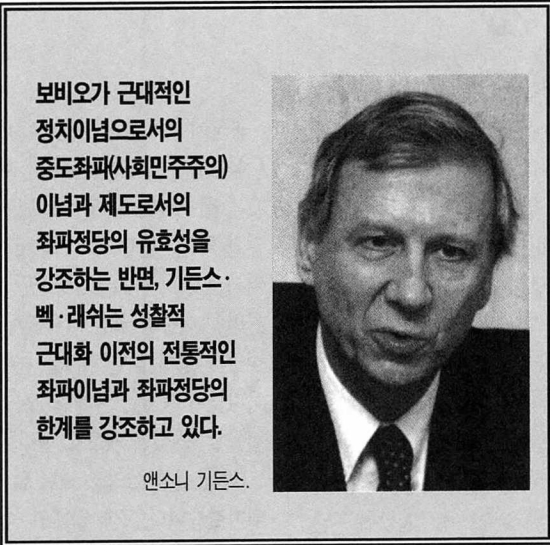
《성찰적 근대화》는 정치적 대안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필된 책이 아니다. 오히려 서구 산업자본주의와 근대화에 대한 필자 3명의 입장과 이들 사이의 답변과 비판을 묶은 독특한 책이다. 필자 3명이 공유하는 바는 기존의 근대화론(좌우파를 포함)과 탈근대화론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대진단적 사회이론으로서 '성찰적 근대화론'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각기 다른 관점에서 성찰적 근대성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차원에서 공통점을 찾기는 어렵다.

먼저 벡은 <정치의 재창조: 성찰적 근대화 이론을 향하여>에서 의도되고 인지된 정책적 이행이나 변화보다는 "자동적이며, 바라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사회적 이행"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벡은 이러한 이행이 산업사회에서 위험사회로의 이행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산업사회가 만들어낸 위험과 문제들은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근본적인 사회질서의 전제들을 무너뜨리는 경향을 갖는다고 본다. 명료한 해결책이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도구적 합리성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통제불가능으로의 회귀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회에서 사회적 적대는 산업사회의 사회적 적대와는 달리 모든 사람이 좌파이자 동시에 사고하고 행위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사회적 관계와 질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개인화의 진전으로 쟁점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정치적 투명성의 종말"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정치적 질서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든스는 <탈전통사회에 산다는 것>에서 오늘날 전통사회의 여러 요소들이 어떤 형태로 변형돼 존재하는지 분석한다. 기든스에 따르면, 전통사회의 변형은 전지구화와 근대성이 낳은 결과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토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든스

가 탈전통사회를 논의하면서 제시하는 정치적 결론은 올리히 벡과는 달리 그리 분명하지는 않다. 다만, 그는 기존의 대의제 민주주의와 관료적



보비오가 근대적인 정치이념으로서의 중도좌파(사회민주주의) 이념과 제도로서의 좌파정당의 유효성을 강조하는 반면, 기든스·벡·래쉬는 성찰적 근대화 이전의 전통적인 좌파이념과 좌파정당의 한계를 강조하고 있다.

앤소니 기든스.



행정 대신에 '정치참여의 갱신 가능성'과 '대화민주주의'의 실현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래쉬의 <성찰성과 그것의 분신들: 구조, 미학, 공동체>는 21세기 전환기에 마르크스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비판이론을 '성찰적 근대성'에서 추출하고 있다. 성찰적 근대성은 먼저 근대가 지니고 있는 이중적인 속성에 기초하고 있다. 래쉬는, 계몽의 변증법이라고 불리는 계몽주의의 역설은 근대성이 지니고 있는 진보성과 파괴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단순 근대화와는 달리 성찰적 근대화에 의해서만 포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래쉬의 성찰적 근대화는 서구의 근대화가 낳은 부작용 혹은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현실의 변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그 증거를 찾고 있다. 그는 탈조직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정보·통신구조와 전문가 체계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공동체가 아닌 이해충돌로부터 초월할 수 있는 성찰적 공동체의 등장을 언급하고 있다.

## 평등주의 태도로 좌우파 구분

위의 3명 필자와는 달리 보비오는 《제3의 길은 가능한가》에서 좌우파의 구분이 현대정치에서 아직도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보비오는 좌우파를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평등주의에 대한 태도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좌파는 평등주의에 대해서 긍정적·진보적 의미를 부여하는 반면, 우파는 부정적·퇴행적 의미를 부여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은 과거나 현재 동일하게 중요한 정치적 가치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조건

적인 평등을 내세우는 '평균주의'와 구분해서 좌파의 평등주의도 선천적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좌파나 우파는 누가 더 평등주의적인가에 의해서 구분될 수 있다. 좌파는 대부분의 불평등이 사회적인 것이며 얼마든지 축소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우파는 대부분의 불평등이 선천적 불평등이며 제거되기 힘들다고 믿는다.

보비오의 또 다른 중요한 주장은 자유에 관한 것이다. 보비오는 자유와 평등이 서로 대칭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자유주의와 권위주의는 좌파와 우파에서 각각 온건파와 극단주의를 구분하는 기준이라는 것이다. 자유와 평등을 바탕으로 하는 분류를 통해 보비오는 좌파=권위주의, 우파=자유주의라는 도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세계적으로 심화된 불평등이 엄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평등이라는 이상은 좌파의 기본적인 이상이라는 것이다.

앞에서 다룬 3명의 논자와 보비오의 논의를 대칭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보비오는 현실 분석적 접근이라기보다는 사상사적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수준에서의 비교는 의미가 없다. 단지 정치적인 함의와 관련해 앞에서 다룬 3명의 성찰적 근대화론에 비추어 본다면, 보비오의 주장은 단선적 근대화에 기초한 논의라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보비오가 근대적인 정치이념으로서의 중도좌파(사회민주주의) 이념과 제도로서의 좌파정당의 유효성을 강조하는 반면, 기든스·벡·래쉬는 성찰적 근대화 이전의 전통적인 좌파이념과 좌파정당의 한계를 강조하고 있다. 보비오가 기든스식 분류에 따라 구좌파(사회민주주의)에 속한다면, 분명히 다른 3명은 제3의 길을 모색하는 이론가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논의가 구체적인 수준에서 대립적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상호보완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보비오는 주로 경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다른 3명은 주로 사회·문화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

·《성찰적 근대화》  
한울/A5신/318면/12,000원  
·《제3의 길은 가능한가》  
새물결/A5신/190면/7,000원